

shalom 기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위한 개인의 기도
translated into Korean

Maranatha

shalom 기도

별거벗은 채로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감정, 저의 두려움
저의 기쁨, 또한 저의 슬픔.
제가 누군지, 누구였는지, 날날이 아시는 주님.

저의 모든 경험들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봤던 모든 이미지들
모든 만짐, 모든 느낌
심지어 제가 듣거나 얘기한 단어 하나까지도
모든 의도, 제 영혼의 생각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일 친한 친구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제 자신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다 아십니다...
제가 누구인지 때문에
비록 제가 누구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상상조차 안 가는 만큼 저를 아껴주시는 주님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무엇이든, 누구든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내보내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저의 탄생부터 저를 아시는 주님
그때부터 저를 사랑하신 주님.
어미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저를 아시고 사랑하신
주님.
저의 천성을 아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품속에서 안아주셨던 주님
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저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신 주님.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를 애기 때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셨던 주님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저의 학교친구, 직장동료,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매 끼마다 함께 하시고
저의 모든 경험들을 함께
밤 늦은 시간까지 저를 지켜주셨던 주님.
모든 일에 같이 하셨던 주님
모든 여정을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 없이 저는 길을 모릅니다
저의 여정에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주님 없이는 지칩니다.
하지만 저의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저의 길이신 주님
주님께선 바로 길, 생명의 길이십니다.

주님 앞에 저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계심에 감사 드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기쁨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젠 저의 모든 아픔과, 멍둑과, 거절들을
제가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저의 생각, 행동, 말로부터 주님과 남들에게 상처
줬던 모든 것들
주님께선 생명수 흐르는 시냇물로 저를 덮어주세요.
말라 타버린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세요.
주님, 지금 저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 지금 저를 만져주셔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버리게 해 주세요
이 순간, 주님,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세요,
모든 유혹들, 악한 생각과 욕망들
제 불안에서 저를 떼어주셔서
모든 공포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완벽하신 사랑이 모든 공포를 몰아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깊고 고요한 임재 가운데 서게
해주세요

제 몸을 바쳐 주님이 계시는 곳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저의 존재가 평화를 알게 해주세요.

제 심장의 박동
주님과 하나되게 하시고
제 몸 곳곳을 성령님으로 채워주세요
혈관 하나마다, 신경 하나마다,
근육 하나마다, 장기 하나마다, 세포 하나마다
주님의 고요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이 순간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말없이도

제가 숨 쉴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들이쉬게
하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제 아픔과 슬픔을 내쉬게 하시고
또 숨을 들이쉴 때마다 주님의 치유와 용서를
들이쉬게 하시고
또 숨을 내쉴 때마다 제 죄책감과 불순함을 내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숨쉬는 것을 통해서도 제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하나되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화합을 알게하시고
주님 안의 평안을 알게 하시며
항상 주님께서 주님이심을 잊지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고요한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재하라'를 듣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받아드리며 모든 환란들을 잠재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 마음과 모든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깊숙한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고요한 감정을
격동치는 강과도 같은 격한 감정을

실패와 좌절
저의 감정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모든 관계 하나하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상황
모든 반응
모든 기쁨과 분노
모든 행복과 좌절
주님께 바칩니다

저의 지적능력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생각과 발상들
제가 찾고자 하는 것들과 이루고 싶은 것들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무지함과 혼란
저의 질문와 의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진실이시며
완전한 진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몸과 마음과 영에 자유를 주시는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구속에서 자유케 하는 진실이며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도 자유를 주시는 진실이며
저의 욕심 또한 자만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진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를 가두는 사슬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
저를 가두는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세상, 저의 세상의 어두움을 통과하며 주님의
따듯하고 밝은 임재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로서 인생 가운데 항상
느끼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믿으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저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약할 때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바, 아버지
항상 저의 연약함에 아버지께서 두 팔로 저를
세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저의 모든 생각과 감정

또한 저의 기억과 희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과거의 저, 지금의 저, 또한 앞으로의 저를 다스리는
권한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잔혹하게 못박혀 있는 주님의 뻗어있는 두 손이
보입니다
세상을 품으시려는 두 손
저를 품으시려는 두 손
사랑을 하시는 두 손
용서를 하시는 두 손
하나되게 하시는 두 손.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저 또한 제 자신을 사랑하며
제 가치를 알게해주세요

진리와 능력의 성령님
이 순간 오셔서
마치 한 마리의 비둘기와도 같이 부드럽게
또한 살아있는 불의 혀같이
또한 한여름밤의 산들바람같이
또한 웅장하고 거센 바람같이 저를 덮어주시고 제
안에 거해주세요.
예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케 해주세요
비록 자격이 없는 저지만,
성령님 저에게 축복을 더해주셔서 제 인생의 열매를
맺게함으로써
성령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성령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DW